



2013년 11월 7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계량/ 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연준의 다음 행보

• 이머징마켓 동향

통화정책 긴축 우려로 상해종합 0.8% 하락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와이솔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영원무역홀딩스 외 5개 종목

• 기업분석

대웅제약, 베이직하우스, LS, 태광, 현대차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0/30(수)	10/31(목)	11/01(금)	11/04(월)	11/05(화)	11/06(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59.58	2,030.09	2,039.42	2,025.17	2,013.93	2,013.67
	등락폭	7.82	-29.49	9.33	-14.25	-11.24	-0.26
	등락종목	상승(상한)	452(6)	271(3)	403(3)	307(10)	304(23)
		하락(하한)	352(1)	555(7)	396(7)	499(0)	499(1)
	ADR	87.81	86.98	88.55	89.40	90.45	91.33
	이격도	10 일	100.57	99.18	99.70	99.14	98.80
		20 일	101.47	99.94	100.31	99.54	98.94
	투자심리	80	70	70	60	50	50
	거래량 (백만 주)	263	255	294	235	258	268
	거래대금 (십억 원)	4,220	4,548	3,657	3,529	3,560	3,881
코스닥	코스닥지수	537.68	532.44	534.74	533.64	528.73	525.99
	등락폭	3.77	-5.24	2.30	-1.10	-4.91	-2.74
	등락종목	상승(상한)	452(4)	271(10)	403(6)	307(5)	304(3)
		하락(하한)	352(0)	555(2)	396(4)	499(1)	499(1)
	ADR	84.90	85.88	86.25	88.22	87.62	87.15
	이격도	10 일	101.35	100.15	100.41	100.13	99.26
		20 일	101.36	100.35	100.76	100.54	99.61
	투자심리	80	70	70	60	50	50
	거래량 (백만 주)	348	313	366	311	327	315
	거래대금 (십억 원)	1,656	1,705	1,752	1,596	1,502	1,495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809.8	1,114.3	934.9	181.3	155.7	233.8	80.3	23.2	260.658
	매도	1,697.2	1,137.9	1,025.8	255.7	158.0	275.1	111.5	33.8	191.9
	순매수	112.6	-23.5	-90.9	-74.4	-2.3	-41.3	-31.2	-10.6	68.8
	11 월 누계	374.9	-70.5	-284.9	-401.7	38.1	-149.4	6.1	-27.0	249.0
	13 년 누계	-4,661.2	5,098.0	1,204.8	648.6	1,237.2	-6,476.7	-446.9	-2,673.8	8,916.4
코스닥	매수	1,357.4	87.7	55.3	7.7	8.6	20.7	5.4	2.3	10.7
	매도	1,318.1	93.7	87.7	18.5	8.8	29.4	7.6	2.8	20.6
	순매수	39.3	-6.0	-32.4	-10.8	-0.3	-8.8	-2.1	-0.5	-9.9
	11 월 누계	49.0	-80.9	28.7	5.6	7.6	23.8	16.1	-0.2	-24.1
	13 년 누계	-718.6	1,631.7	-72.2	-126.2	-85.2	139.7	-134.7	-84.4	218.6

연준의 다음 행보

11월 월간 밴드	1,980-2,100pt
2013년 연간 밴드	1,780-2,100pt
12MF PER	9.7배
12MF PBR	1.03배
Yield Gap	7.4%P

- ▶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의 논문: 제로금리 기초 연장 가능성 시사
- ▶ 엘런의 Optimal control rule과 같은 맥락: 실업률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인플레이션 용인
- ▶ 미국 중심의 경기 회복세와 유동성 장세의 연장이라는 틀에서 의미

■ 제로금리 기초 연장 가능성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의 논문
: 제로금리 기초 연장 시사

이번주 KOSPI 시장은 미국 고용지표 발표, ECB 회의, 중국 3중전회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단기 방향성은 대외 이벤트가 완료되는 시점에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연준의 제로금리 기초가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그 근거는 이번주 목-금요일 IMF 워싱턴 컨퍼런스에서 발표될 연준 고위 이코노미스트들의 논문이다. 연준 통화정책국장인 William English¹ 외 2명과 조사통계국장인 David Wilcox² 외 2명이 각각 작성한 보고서 두 개가 동시에 금리 인상의 기준이 되는 실업률 목표치를 낮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5% 이내에 머무른다면 실업률이 6.5%로 떨어질 때까지 제로금리 기초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English 팀의 논문에 따르면 포워드 가이드에 따른 경제학적 이득은 목표 실업률이 6.5%일 때보다 6.0%일 때, 6.0%일 때보다 5.5%일 때 더 커진다. 한편 Wilcox 팀은 높은 실업률이 미국의 생산능력에 입히는 손실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고용시장의 ‘이력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업률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연준의 목표인 2%를 넘어서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엘런의 Optimal control rule
과 같은 맥락

이 두 논문은 자넷 엘런의 ‘Optimal control rule’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통화정책 산출 방식과 Optimal control rule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목표로부터의 일시적인 이탈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엘런은 부의장직을 수행하던 작년 5월, 6월, 11월 ‘연준의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는 상한(ceiling)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률의 조속한 하락에 도움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2% 이상의 인플레이션도 허용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14일 예정된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엘런은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¹ <http://www.imf.org/external/np/res/seminars/2013/arc/pdf/english.pdf>

² <http://www.imf.org/external/np/res/seminars/2013/arc/pdf/wilcox.pdf>

테이퍼링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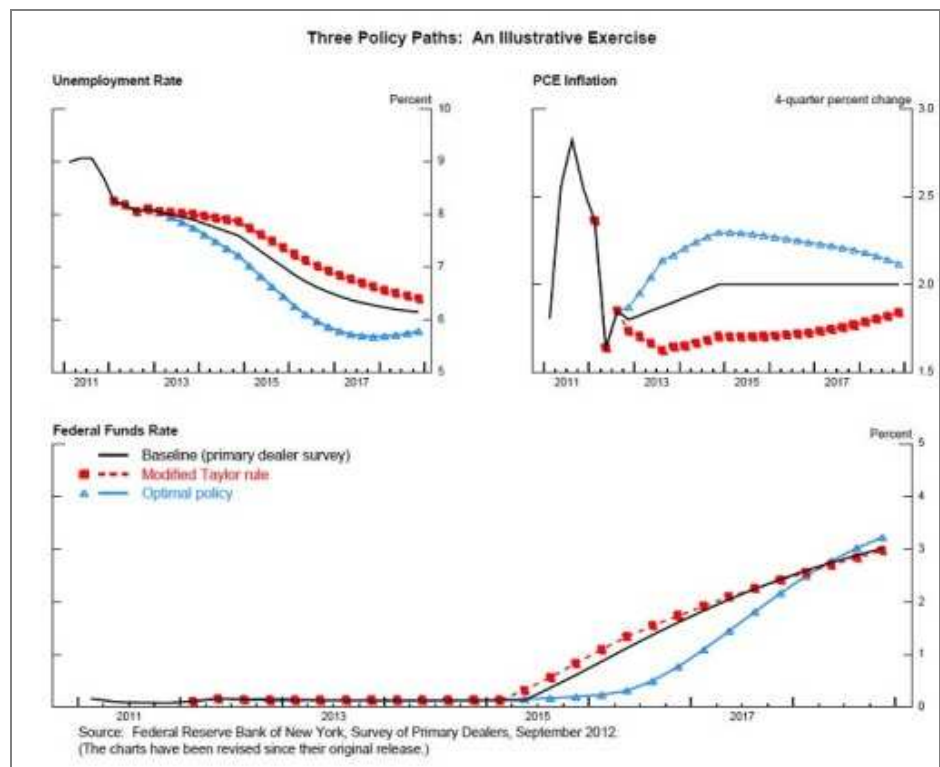
반면 양적완화 축소는 생각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 연준 정책결정자들은 경제 성장률이 강화되고 자산매입 정책이 종료된다고 해도, 초저금리 정책에 의한 경기 부양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기 위해, 금리 인상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수개월 동안 논쟁해왔다. 7월 FOMC 의사록에는 포워드 가이드를 조정할 경우 중앙은행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나와 있다. 9월에도 6.5% 조건을 유지하되 시장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는 결론이 도출됐다. 그러나 2.5%의 인플레이션 조건에 대해 1.5%의 하단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다양한 선택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English 팀의 논문에서 강조하는 포워드 가이드의 긍정적 효과를 강화시키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테이퍼링 단행을 발표하는 대신 6.5%의 실업률 조건을 낮추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 변화로 직접 연결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연준 구조상 버냉키와 엘런을 포함한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리라 짐작될 뿐이다. 또한 연준이 상당기간 제로금리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선진국 특히 미국 중심의 경기 회복세와 유동성 장세의 연장이라는 틀에서 의미가 있다.

Optimal policy 하에서 상대적으로

- 1) 실업률 ↓
- 2) 인플레이션 ↑
- 3) 연방기금금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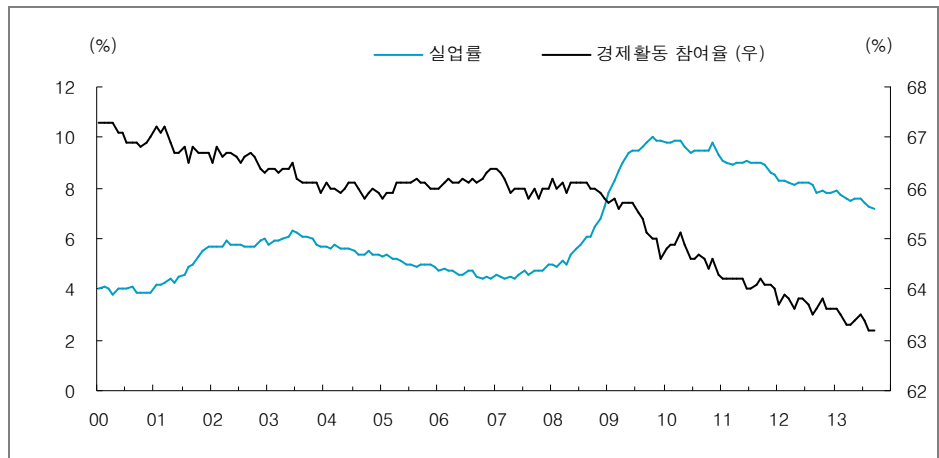
[그림 1] 자넷 엘런 12년 11월 연설문 중 예상경로 3가지 (Baseline, Modified Taylor rule, Optimal policy)



자료: 미 연준,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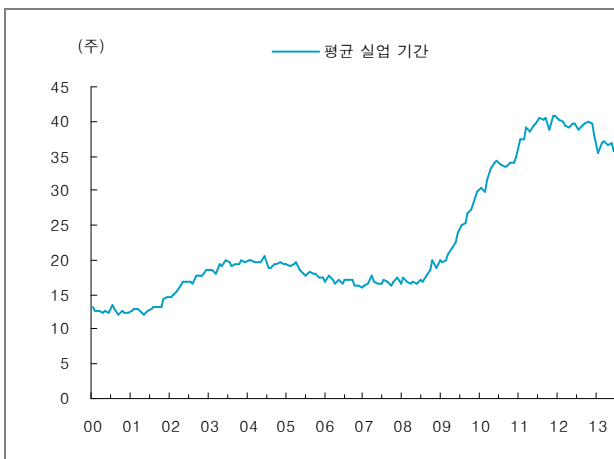
경제활동 참여율 하락으로
인해 실업률 목표치 더
낮출 필요

[그림 2] 미국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여율: 경제활동 참여율 역대 최저 수준, 지속 하락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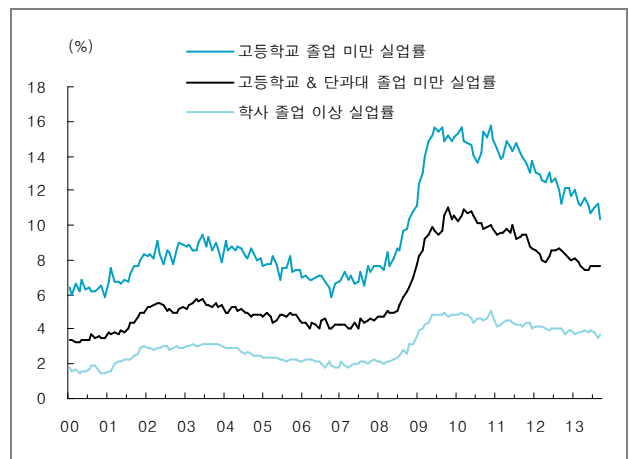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 미국 평균 실업 기간: 고용시장 이력현상 우려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4] 학력별 실업률: 고용의 질적 저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통화정책 긴축 우려로 상해종합 0.8% 하락

- ▶ 통화정책보고서에서 중립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인플레이션 확대 언급 등에 투자심리 약화
- ▶ 금융, 부동산, 정책 수혜주들이 하락한 반면 겨울철 천연가스 공급차질로 가스 관련주 상승
- ▶ 홍콩H는 해외 경제회복 둔화 우려, 본토 레버리지 축소 우려로 0.7% 하락

상해종합 0.8% 하락
영화방송, 임업, 금융신탁,
은행 등 업종 약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0.8% 하락해 하루 만에 약세로 전환됐다. 약세로 출발 후 장중 혼조 흐름이었고 오후에 하락 폭이 확대됐다. 거래대금은 865억위안으로 전날의 780억위안보다 더 늘었다. 어제 발표된 3분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중립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 레버리지 축소 등이 언급돼 부담을 줬다. 은행간 채권시장 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소식에 금융과 부동산 업종이 약세였다. 전 날 깜짝 반등했던 정책 수혜주도 다시 반락했다. 그러나 겨울철 천연가스 공급 차질로 가격상승이 예상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 관련주가 상승세를 탔다. 업종별로는 영화방송(-3.0%), 임업(-2.7%), 금융신탁(-2.2%), 은행(-1.9%), 통신서비스(-1.7%), 유통(-1.7%), 농업(-1.6%), 의료서비스(-1.3%), 유틸리티(-1.2%), 제약(-1.2%), 부동산(-1.0%), 철강(-0.8%), 비철금속(-0.5%), 음식료(-0.5%) 등이 하락했던 반면 석유(3.1%), 석탄(1.1%) 등은 상승 마감했다.

■ 홍콩 시장

홍콩H 0.7% 하락
은행, 자동차, 음식료, 보험,
전력 등 업종 약세

홍콩H지수는 0.7% 하락해 이틀째 약세를 보였다.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해 장중 반등을 시도했으나 10,562p로 마감했다. 유로존의 내년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과 미국 경제지표 발표에 대한 경제심리 등이 지수에 부담을 줬다. 중국인민은행이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레버리지 축소를 언급했던 것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3년 만에 다시 홍콩시장에 상장된 본토은행(중경은행)이 거래 첫날 주가가 공모가격을 밑돌아 은행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석유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고, 자동차, 음식료, 은행, 보험, 전력, 제약 등이 약세를 주도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11/6(수)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139.61	-0.82	-0.97	-0.09	-5.71
홍콩 H	10,561.57	-0.71	-0.75	-0.62	-7.65
인도 SENSEX	20,950.63	-0.12	0.10	-1.01	7.84
러시아 RTS	1,460.46	0.02	-2.09	-1.35	-4.36
브라질 보베스파	53,831.85	-1.11	-1.30	-0.78	-11.68
베트남 VN	502.52	0.55	0.69	1.03	21.46
MSCI 이머징마켓	1,016.30	-1.05	-2.54	-1.75	-3.69

주: 6일 오후 5시 15분 기준

시장 동향과 특징주

금융투자 등 기관의 순매도 기조가 지속되며 사흘 연속 하락

- 미국증시는 연이어 발표되는 미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 예비치와 10월 실업률 발표를 앞둔 가운데 유로존 성장을 전망치 하향 소식이 전해지며 관망세 속 혼조세로 마감.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과 연기금의 매수세로 장중 2,023P까지 상승했으나 금융투자의 공격적인 매도세가 지속되며 상승폭을 반납, 하락반전하며 약보합세로 마감. 강보합세로 출발한 코스닥은 장 막판 기관의 매도세가 확대되며 525P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며 현대차, 기아차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할상장 한 아세아와 아세아시멘트는 분할 상장 첫날 아세아는 상한가를 아세아시멘트는 급락세를 보이며 희비가 엇갈림.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경영 복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520% 급증한 금호산업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경영정상화 기대감에 STX그룹주가 이틀 연속 급등. 또한, 여야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KCC를 비롯해 리모델링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오는 11월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된 게임빌은 사흘 연속 하락하며 신저가를 기록했으며, 모바일기기용 렌즈와 카메라모듈 전문 생산 기업인 해성옵틱스는 코스닥 신규 상장 첫날 12% 이상 급락세를 보임

종목/이슈	내 용
아세아(002030) ▶119,000(상한가)	분할 상장 첫날 상한가 - 지주사인 동사와 사업회사인 아세아시멘트로 분할되며 재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 반면, 아세아시멘트(183190)는 장중 하한가까지 급락하는 등 하락세를 보이며 희비가 엇갈림 - 시멘트업장 개선이 내년에도 이어지고 최근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등에 따라 시멘트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금호산업(002990) ▶12,400(상한가)	3분기 실적 호조 소식에 상한가 - 3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2% 감소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520.6%, 678.9% 증가하는 등 실적 호조 소식에 상한가 - 아울러, 채권단이 경영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을 등기이사로 재선임하며 3년 6개월여 만에 경영에 복귀하게 됐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
리모델링 관련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소식에 강세 -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여야합의 소식이 강세. 개정안은 오는 12월 심의 및 처리될 예정으로 법안 통과와 함께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 - KCC(002380, +8.10%), 한솔홈데코(025750, +5.74%), 국보디자인(066620, +3.98%), LG하우시스(108670, +3.09%) 등 강세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SK C&C(034730) ▶125,000(+6.38%)	- 주시가격 안정을 위해 자사주 150만주를 장내 매수하기로 결정하며 신고가 경신. 취득예정금액은 1,762억5,000만원이며 취득기간은 금일부터 2014년 2월 5일까지
에스에프씨(112240) ▶4,835(+0.10%)	- 동사는 태양광 모듈용 백시트 부문 중국향 매출비중이 90%를 웃돌아 중국 태양광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와이솔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와이솔 (122990)	12,650 (+0.0)	12,650 (11/04)	- 3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모바일용 신제품 모듈 매출 본격화에 힘입어 4분기에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달성 전망 - 전방산업의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SAW제품 거래선 다변화, 통신 모듈 제품의 확장성, 신제품 모듈 출시에 따른 수익성 개선 등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 지속 예상
오디텍 (080520)	13,700 (-8.1)	14,900 (10/11)	- LED용 제너 다이오드 칩 국내 시장점유율 독보적인 1위 업체로 LED 조명시장 성장에 따른 제너 다이오드 출하량 증가세 지속 전망 - 휴대폰용 센서, 자동차용 센서, 그리고 국방 헬기용 센서 매출 증가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전망 - 전방산업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HB테크놀로지 (078150)	1,675 (-2.0)	1,710 (9/30)	- 올해 삼성전자 OLED 투자 확대로 턴어라운드 시현. 경쟁사 이탈로 검사장비 부분 독과점적 수혜 예상 - 관계사 엘에스텍과의 흡수합병으로 도광판 부분 수직계열화 완성과 동시에 자산 건전성 확보. 합병 후 전환우선주는 모두 전환된 상황이며 잔여 BW 워런트는 연내 소각 예정 - 삼성전자 OLED A3라인 투자 지연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기 수주잔고를 통해 실적 개선 추세 지속되고 있어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성광벤드 (014620)	27,850 (-3.1)	28,750 (9/09)	- 전방산업 호조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주 지속. 미국 세일가스는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전망 -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생산성 제고로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률 개선 예상 - 금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품 MIX 개선으로 20%대의 고수익성 유지 전망
디지털옵틱 (106520)	18,200 (-7.6)	19,700 (8/28)	- 휴대폰 렌즈 사업부가 4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며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 - 보급형 스마트폰 및 신규 태블릿PC 출시 등 우호적인 영업환경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실적 개선 흐름 지속 전망 - BW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공장 통합 및 대규모 증설을 위해 발행이었다는 점과 금년 예상의 대비 PER이 5배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한적인 전망
휠라코리아 (081660)	78,200 (+23.5)	63,300 (8/28)	- 북미 지역의 소비 경기 회복과 중저가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강화로 휠라USA 실적 개선 - 휠라 USA 현재 오더 증가율이 30%대에 달하고 2012년 하반기 대량 반품 매출과 할인 판매로 인한 낮은 베이스로 하반기 전망도 긍정적 - 국내부문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향후 실적 악화 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현재 와이솔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영원무역홀딩스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3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영원무역홀딩스 (009970)	68,200 (+3.5)	65,900 (11/04)	1,533	232	82	7,083	9.6
- 1등 아웃도어 브랜드(노스페이스, 에이글)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영원아웃도어는 하반기 및 2014년 실적 개선 모멘텀 예상되며 영원무역도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와 2014년 외형과 수익성 개선 전망 - 방글라데시 증설 구체화와 함께 생산 품목 및 고객 다각화 시도에 장기 성장 잠재력 내재 - 현 시가총액은 동사가 지분 50.52%를 보유한 영원무역 지분 가치와 유사하며 지분 59%를 보유한 영원아웃도어의 가치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							
LG화학 (051910)	284,000 (-6.7)	304,500 (10/11)	5,010	676	515	29,123	9.8
- 합성수지 중심의 화학 업황 반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전기차 시장 재조명 등으로 영업적자인 중대형 이차전지 부문의 장기 성장성 재부각 가능성 - OLED 재료 및 터치센서용 ITO 필름 등 신제품 추가로 보다 다양해진 전자재료 제품 포트폴리오 보유							
고려아연 (010130)	310,000 (-5.2)	327,000 (9/09)	5,010	676	515	29,123	10.6
- 아연과 연 생산 능력확대에 따른 장기 성장 잠재력 보유 - 환경 규제에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제련사 설비 증설이 제한되고 있어 아연과 연 가격 안정화 예상 - 비철금속 산업 최고의 경쟁력, Fumer 증설효과, 귀금속 및 상품가격 안정화 가능성 등을 주목할 필요							
엔씨소프트 (036570)	207,000 (+22.5)	169,000 (7/30)	726	182	164	8,200	25.2
- 주력 게임인 블레이드앤소울과 길드워2가 중국에서 상용화될 예정으로 하반기 해외 매출 본격화에 대한 기대 유효 - 리니지1과 아이온 등 기존 게임들의 성과가 견조한 가운데 신규 MMORPG인 와일드스타(WildStar)의 연내 출시, 모바일 게임 개발 등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성장 기조는 유지될 전망							
LS (006260)	80,300 (+9.7)	73,200 (7/22)	12,821	449	263	9,462	8.5
- 예상보다 더딘 실적 개선과 JS전선 문제 등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상태로 밸류에이션은 금융위기 이후 저점 수준으로 추가적인 De-rating 가능성은 제한적 - 하반기 LS산전, LS니코동, LS엠트론 등 자회사들의 점진적인 실적 개선 기대 유효 - 전선 사업부가 전력선 수익성 향상, 해저 케이블 이익 기여 본격화, 2014년 자회사 상장 모멘텀 등을 주목할 필요							
삼성전자 (005930)	1,451,000 (-4.5)	1,520,000 (5/02)	235,178	42,197	31,496	202,968	7.1
-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계절적 수요 약세에도 불구하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현 - 갤럭시S4 출시로 2분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를 감안할 때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해소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엔씨소프트, 삼성전자, 고려아연, LG화학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대웅제약(069620)

매수(유지)

목표가: 105,000원(유지)

종가(11/5): 81,100원

국내외 투자자 관심 증가는 주가 추가 상승 신호

■ 투자자들 검찰 수사 우려보다 실제 영업성과에 더 주목, 11월 업종 top-picks

예상보다 빠른 수익성 개선과 저 PER 매력 및 주가 할인 요인(신약/해외 모멘텀 부재) 완화 등을 감안해 우리는 10월 28일 검찰수사 우려보다는 영업성과에 더 주목하자고 했다. 이와 관련해 11월 내수 월보에서 독집자와 함께 대웅제약을 11월 업종 top-picks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대웅제약 주가는 리베이트 수사 우려로 인한 급락에서 회복하며 지난주 초부터 9%(최대 13%) 상승했다.

■ 국내외 투자자 모두 대웅제약에 관심, 주요 Q&A 정리

실적 강세와 주가 회복으로 최근 대웅제약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참고로 10월에도 국내외 투자자들이 모두 대웅제약에 관심이 있었으나, 당시 주요 관심사가 보톡스 바이오시밀러 국내외 출시였다면, 이제는 동사의 영업 펀더멘털 개선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무엇보다도 최근의 급격한 수익성 개선 배경 및 지속 여부다.

■ 저 PER과 펀더멘털 개선 감안 시 추가 상승 여력 충분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해 일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valuation이 12MF PER 10.5배로 상위사 대비 41% 할인(역사적 평균 할인을 46%)된 상태라 성장성 대비 valuation merit가 유효하다. 더구나 영업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2014년부터는 코프로모션의 수수료 매출 순증분이 기존 대형품목의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상회하기 때문에, 전체 매출의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하다. 오랜 주가 할인 요인(신약/해외모멘텀 부재)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목표주가(105,000원)에 내재된 PER 15배까지의 re-rating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1A	707	60	65	50	4,999	180.8	76	5.7	3.3	0.8	14.7
2012A	665	38	43	34	3,401	(32.0)	55	14.0	8.1	1.3	9.2
2013F	676	89	91	73	7,091	108.5	106	11.8	8.1	2.0	17.8
2014F	713	98	101	80	7,798	10.0	113	10.7	7.6	1.8	17.0
2015F	769	113	117	93	9,046	16.0	128	9.2	6.7	1.5	17.1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1월 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베이직하우스(084870)

매수(유지)

목표가: 25,000원(유지)

종가(11/5): 20,000원

실적은 우려를 넘어선다

■ What's new : 4분기 연속 실적 개선

3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대비 3% 증가한 1,088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44억원 적자에서 이번 3분기에는 2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우리와 시장 Consensus에 부합, 세전이익은 중국 자회사에서 보조금 발생으로 예상치를 상회했다. 국내 부문이 3Q12 48억원 영업 적자에서 타이트한 재고 관리에 힘입어 흑자 전환했고 중국 부문 영업이익은 23억원 (+148%YoY)으로 양호했다. 국내 부문 매출액이 8% 감소했으나 2012년 철수한 VOLL 브랜드 매출 감소분 (36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3Q12와 유사한 수준이다. 오히려 3Q12에 발생한 재고자산 관련 손실이 소멸되면서 흑자 전환해 수익성은 개선되었다.

■ Positives : 중국 수익성 개선 지속, 성수기 도래

중국 법인 이익 개선이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TBH Global 매출액은 전년대비 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48% 급증했으며 영업이익률은 1.4%에서 3.2%로 상승했다. 평균 매장수가 전년대비 8.4% 증가했으나 매출 증가율이 매장 증가율을 상회했고, 감가상각비, 판촉비, 재고자산평가손실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면서 판관비 증가율이 2%에 불과했다. 감가상각대상 신규 매장수는 4Q13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동사의 손익이 4분기 연속 개선되었음에도 주가는 최근 제자리 국면이었는데, 연간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는 성수기 4분기가 도래한다.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을 전년대비 28% 증가한 308억원으로 추정, 손익에 가장 중요한 중국 법인이 10월 매출액이 전년대비 16% 증가해 스타트는 순조롭다.

■ Negatives : 베이직하우스 국내 부문은 저조, 4Q 예상 하회 가능성

10월 국내 부문 매출이 전년대비 9%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VOLL 브랜드 철수로 외형이 부진하고 베이직하우스와 마인드브릿지 매출이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다. 또한, 최근 제품 제조 과정에서 유해 물질 검출 이슈가 발생했는데, 단기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전체적인 구매 심리 저하와 국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베이직하우스 브랜드 매출 둔화로 이어진다면 4분기 국내 부문 기대치는 낮추어야 한다. 단, 상기 요인은 펀더멘털 이슈보다는 관련 포인트이다. 국내 부문 연간 이익 기여도는 13%에 불과할 것이고 4분기에도 국내 부문 영업이익은 58억원, TBH Global 영업이익을 250억원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 결론 : 성수기와 2014년을 겨냥한 매수 관점 유지

중국 의류 소비는 소비 경기 둔화 우려에도 지속적으로 10%대 후반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중국 시장 조기 진출로 인해 국내 패션 업체 중 중국 내 가장 뚜렷한 성과를 시현하고 있으며 향후 백화점 침투 여력도 충분하다. 최대 성수기인 4분기와 2014년을 겨냥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목표주가 25,000원 (2014F PER 12.5배)을 유지한다.

	3Q13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10	109	(1)	114	(9.5)	3.0	544	556
영업이익	2	3	12	2	(66.9)	NM	54	51
영업이익률(%)	2.1	2.4	0	2	(4.1)	NM	9.9	9.2
세전이익	1	4	256	2	(19.3)	NM	49	44
순이익	3	4	40	1	38.5	NM	34	30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1월 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최문선(moonsun@truefriend.com) ☎ 02-3276-6182

LS(006260)

매수(유지)

목표가: 88,000원(유지)

종가(11/5): 77,500원

전선의 화려한 부활

■ What's new : 전선의 턴어라운드로 어닝 서프라이즈

3분기 영업이익이 1,505억원을 기록해 우리 추정치를 10.9%, 컨센서스를 12.5% 상회했다. 특히 지배지분순이익은 966억원으로 우리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각각 40.4%와 29.6% 넘어선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다. 2012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종 요인들로 실적이 부진했던 LS전선 실적이 회복했다. LS전선 연결 영업이익이 610억원으로 2분기보다 449억원이 늘었는데, 1) 본사 영업이익이 158억원이 늘었고, 2) 자회사들의 합계 영업이익이 적자(23.4백만달러)에서 흑자(16.4백만달러)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 Positives : 4분기, 성수기 효과로 영업이익 더 늘어날 것

LS전선이 비수기인 3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이는 4분기 실적 전망을 밝게 한다. 통상적으로 4분기는 내수와 해외 시장이 모두 성수기여서 계절성이 나타난다. 3분기 턴어라운드에 이어 4분기에도 LS전선 영업이익이 710억원으로 16% 증가할 것이다. 또한, LS산전도 4분기 영업이익이 540억원으로 28% 늘 것이다. 4분기는 전선뿐만 아니라 LS산전의 주력 사업인 전력기기 및 전력시스템 시장도 성수기이다.

■ Negatives : LS니꼬동제련의 부진

LS의 LS니꼬동제련(LS 지분율 50.1%) 지분법이익은 242억원으로 3분기 244억원과 유사했다. LS니꼬동제련의 연결 영업이익은 443억원으로 전분기대비 49.7% 감소했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환입으로 당기순이익은 446억원으로 전분기대비 7.3% 감소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1) 회소금속과 귀금속의 원재료인 슬라임 조달에 차질이 지속되었고, 2) 귀금속 가격이 하락해서이다. 4분기에 영업이익 개선이 어려워 순이익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4분기 LS의 LS니꼬동제련 지분법이익이 13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LS 연결 영업이익 증가폭을 낮추는 요인이다.

■ 결론 : 주력 자회사의 턴어라운드는 분명한 호재

12개월 forward EPS 11,092원에 목표 PER 8배를 적용한 목표주가 88,000원을 유지한다. 현 주가대비 14%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 동안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던 LS전선의 턴어라운드를 주목해야 한다.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이기 때문이다. 사업부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구조 개선, 해외 자회사의 흑자 전환, 차입금 감소에 의한 이자 비용 감소 등 향후에도 실적이 개선이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다. LS 주가는 LS전선 실적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LS전선의 실적 턴어라운드는 너무나 분명한 호재이다.

(단위: 십억원, %, %p)

	3Q13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3,169	2,755	(13.1)	2,999	(9.2)	(4.4)	11,651	11,973
영업이익	136	150	10.9	134	23.0	92.9	531	485
영업이익률(%)	4.3	5.5	(0.5%p)	4.5	NM	NM	4.6	4.1
세전이익	102	153	50.5	117	9,210.8	233.4	294	236
순이익	86	126	45.3	94	흑전	199.1	234	181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1월 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태광(023160)

중립(하향)

종가(11/5): 22,700원

총체적 난국

■ What's new : 보수적인 예상을 무색케 하는 어닝 쇼크

우리는 10월 2일자 피팅업 preview를 통해 태광의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여 경쟁사인 성광벤드와의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태광의 3분기 영업실적은 보수적인 우리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매출액은 658억원 (-29.5% YoY), 영업이익은 67억원(-40.4% YoY)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의 영업이익 추정치 104억원과 컨센서스 영업이익 134억원에 각각 35.7%, 49.9% 못 미치는 것이다. 영업이익률은 10.2%로 전분기 15.5%대비 5.3%p 하락했다. 어닝 쇼크의 주된 요인은 소형제품 생산량 증가로 인한 ASP 하락과 생산성 훼손 때문이다. 원화 강세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 Positives : Mix 개선이 수익성 방어

저수익성의 카본제품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1분기 62.4%였던 카본제품 비중이 2분기 57.7%로 감소하였고 3분기에 다시 55.8%로 감소하였다. 매출액의 큰 감소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 수주잔고에서 카본제품 비중도 50% 초반이기 때문에 제품 mix 개선은 지속될 것이다.

■ Negatives : 뼈아픈 매출 급감과 생산성 저하

상반기 수주 부진과 추석연휴 등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하여 분기 매출액이 2년만에 600억원대로 내려 앉았다. 특히 소형 제품 비중이 증가하여 ASP가 하락했고 생산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생산성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영업이익률도 10.2%에 그쳤다. 여전히 해양플랜트 피팅 등 고부가제품 수주를 경쟁사에게 내주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당분간 성광벤드와의 실적 격차를 의미있게 메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수익예상을 <표 1>과 같이 하향조정한다.

■ 결론 : 수익예상 하향으로 valuation 매력 낮아 투자의견 중립 하향

올해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역성장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수익성 회복이 느려 실적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피팅 제품 수주와 중소형 피팅 제품의 외주 생산을 통해 ASP 상승과 생산성 개선을 동시에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2014년 EPS 기준 PER은 14.3배로, 현 주가 수준에서는 투자 매력도가 낮다. 이에 따라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한다.

	3Q13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78.4	65.8	(16.0)	90.0	(26.9)	(29.5)	323.5	366.3
영업이익	10.4	6.7	(35.7)	13.4	(52.0)	(40.4)	43.2	56.2
영업이익률(%)	13.3	10.2	(3.1)	14.9	(5.3)	(1.9)	13.4	15.3
세전이익	8.8	4.5	(48.7)	NA	(72.2)	(54.4)	46.2	NA
순이익	6.9	3.6	(47.1)	10.4	(70.9)	(53.2)	35.6	46.4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1월 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차(005380)

매수(유지)

목표가: 320,000원(유지)

종가(11/5): 244,500원

Sonata 효과 09년보다 더 클 전망

■ 2개의 신모델 출시로 주가 상승세 재개할 전망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20,000원(12개월 forward PER 10배, 과거 평균을 10% 할증)을 유지한다. 동사의 주가는 10월 말부터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최근 약세를 보였다. 현 주가의 12개월 forward PER은 7.4배에 불과하나 EPS 성장률은 14% YoY로 예상된다. Toyota의 3/14F PER 11.2배 대비 저평가돼 있다. 동사의 주가는 2개의 신모델 출시가 다가옴에 따라 상승세가 재개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Genesis 출시로 후광효과를 누렸던 09년보다도 내년 봄에 출시될 신형 Sonata 효과가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 Sonata의 해가 다가온다.

85년 이후 과거 5번의 Sonata 출시를 돌아보면 주가는 출시했던 해에 항상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동사의 주가는 평균 99% 상승해 동기간 Kospi 수익률을 68.6%p 상회했다. 또한 최근 3차례의 Sonata 출시를 돌아보면 동사의 주가는 국내 출시일 전 3개월, 6개월 동안 Kospi를 각각 17%p, 29.1%p 상회했다. Sonata는 85년, SonataⅡ는 93년에 출시됐다. 이후 완전변경 모델인 EF, NF, YF가 각각 98년, 04년, 09년에 뒤를 이었다. 6세대인 LF Sonata는 14년 4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Sonata는 국내 및 미국에서 동사 모델 중 2번째로 많이 팔리는 모델이며 매출액 및 이익에서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다.

■ Sonata 효과 09년보다 더 클 전망

2세대 DH Genesis는 11월 말에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며 미국, 중동 등에는 내년 초부터 판매될 계획이다. 1세대 BH Genesis는 08년 1월에 국내에서, 08년 7월 미국에서 출시됐다. 그리고 09년에 BH는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Sonata 미국 판매는 08년 117,357대에서 12년 230,605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한 09년 9월 YF 출시 이후 글로벌 Sonata의 월평균 판매는 05년 1월~09년 8월 월평균 판매 대비 52.8% 증가한 41,471대였다. LF Sonata 출시에 따른 효과는 09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2개의 모델 출시 시기 간의 차이가 09년에 비해서 훨씬 더 짧고 신형 Genesis는 현대의 첫 번째 AWD(All-Wheel-Drive; 상시4륜구동) 세단으로 SDC(Smart Damping Control), R-EPS(Rack-type Electric Power Steering)와 같은 첨단 기술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1A	77,798	8,029	10,447	7,656	26,894	37.5	10,364	9.1	8.7	1.7	22.1
2012A	84,470	8,437	11,605	8,562	29,991	11.5	10,961	8.2	8.1	1.5	20.5
2013F	89,867	8,758	12,043	8,858	31,028	3.5	11,337	7.9	7.2	1.3	18.3
2014F	96,732	9,566	13,189	9,689	33,938	9.4	12,201	7.2	6.3	1.1	17.3
2015F	103,560	10,479	14,437	10,592	37,101	9.3	13,224	6.6	5.7	0.9	16.1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1월 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0/30(수)	10/31(목)	11/01(금)	11/04(월)	11/05(화)	11/06(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59.58	2,030.09	2,039.42	2,025.17	2,013.93	2,013.67
	등락폭	7.82	-29.49	9.33	-14.25	-11.24	-0.26
	등락종목						
	상승(상한)	452(6)	271(3)	403(3)	307(10)	304(23)	359(12)
	하락(하한)	352(1)	555(7)	396(7)	499(0)	499(1)	432(2)
	ADR	87.81	86.98	88.55	89.40	90.45	91.33
	이격도						
	10 일	100.57	99.18	99.70	99.14	98.80	98.89
	20 일	101.47	99.94	100.31	99.54	98.94	98.90
	투자심리	80	70	70	60	50	50
코스닥	거래량 (백만 주)	263	255	294	235	258	268
	거래대금 (십억 원)	4,220	4,548	3,657	3,529	3,560	3,881
	코스닥지수	537.68	532.44	534.74	533.64	528.73	525.99
	등락폭	3.77	-5.24	2.30	-1.10	-4.91	-2.74
	등락종목						
	상승(상한)	452(4)	271(10)	403(6)	307(5)	304(3)	357(1)
	하락(하한)	352(0)	555(2)	396(4)	499(1)	499(1)	563(1)
	ADR	84.90	85.88	86.25	88.22	87.62	87.15
	이격도						
	10 일	101.35	100.15	100.41	100.13	99.26	98.74
	20 일	101.36	100.35	100.76	100.54	99.61	99.12
	투자심리	80	70	70	60	50	50
	거래량 (백만 주)	348	313	366	311	327	315
	거래대금 (십억 원)	1,656	1,705	1,752	1,596	1,502	1,495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809.8	1,114.3	934.9	181.3	155.7	233.8	80.3	23.2	260.658	47.7
	매도	1,697.2	1,137.9	1,025.8	255.7	158.0	275.1	111.5	33.8	191.9	45.8
	순매수	112.6	-23.5	-90.9	-74.4	-2.3	-41.3	-31.2	-10.6	68.8	1.9
	10 월 누계	374.9	-70.5	-284.9	-401.7	38.1	-149.4	6.1	-27.0	249.0	-19.4
	13 년 누계	-4,661.2	5,098.0	1,204.8	648.6	1,237.2	-6,476.7	-446.9	-2,673.8	8,916.4	-1,641.6
코스닥	매수	1,357.4	87.7	55.3	7.7	8.6	20.7	5.4	2.3	10.7	11.1
	매도	1,318.1	93.7	87.7	18.5	8.8	29.4	7.6	2.8	20.6	12.0
	순매수	39.3	-6.0	-32.4	-10.8	-0.3	-8.8	-2.1	-0.5	-9.9	-0.9
	10 월 누계	49.0	-80.9	28.7	5.6	7.6	23.8	16.1	-0.2	-24.1	3.3
	13 년 누계	-718.6	1,631.7	-72.2	-126.2	-85.2	139.7	-134.7	-84.4	218.6	-840.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47,649
철강및금속	23,408
기계	1,458
POSCO	24,767
기아차	17,480
삼성중공업	12,412
현대중공업	8,616
대우조선해양	5,544
전기,전자	-74,273
화학	-8,082
보험	-5,234
삼성전자	-39,399
삼성SDI	-26,086
LG화학	-12,390
삼성화재	-5,117
NAVER	-4,369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45,277
철강및금속	29,042
전기가스업	5,814
POSCO	29,568
기아차	28,322
현대중공업	11,230
SK C&C	5,516
한국전력	3,393
전기,전자	-18,438
통신업	-11,461
기계	-4,235
삼성전자	-10,208
KT	-8,844
LG하우시스	-4,714
NAVER	-3,633
LG전자	-3,408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4,998
서비스업	1,604
전기가스업	1,413
삼성전자	2,468
삼성테크윈	1,649
TIGER 레버리지	1,451
한국가스공사	1,399
엔씨소프트	1,200
철강및금속	-8,749
운수장비	-4,992
유통업	-2,886
POSCO	-8,027
현대중공업	-3,665
KODEX 레버리지	-3,358
TIGER 인버스	-2,487
KT&G	-2,326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23,760
철강및금속	18,435
보험	6,325
POSCO	18,134
삼성화재	8,610
현대차	5,512
기아차	5,329
우리금융	5,186
전기,전자	-29,040
통신업	-6,112
금융업	-4,770
삼성전자	-13,556
KODEX 200	-11,330
삼성SDI	-7,289
신한지주	-7,082
한국가스공사	-5,448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22,749
철강및금속	61,937
화학	9,885
POSCO	65,167
기아차	57,475
현대중공업	19,596
삼성중공업	18,889
현대차	15,072
한국전력	10,262
SK C&C	10,252
SK이노베이션	10,087
한화케미칼	7,022
우리금융	6,749
전기,전자	-208,262
통신업	-16,691
유통업	-10,376
삼성전자	-118,114
삼성SDI	-51,535
삼성전기	-20,390
NAVER	-13,175
KT	-12,652
신한지주	-7,520
GKL	-6,972
한국가스공사	-6,566
SK하이닉스	-6,113
CJ	-5,623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유통업	17,374
전기,전자	9,913
건설업	6,430
삼성SDI	17,682
현대중공업	15,788
KCC	12,731
엔씨소프트	8,717
현대제철	8,160
호텔신라	7,206
LS	7,116
효성	6,448
삼성전자	6,241
LG하우시스	5,527
철강및금속	-35,488
서비스업	-13,565
전기가스업	-11,750
POSCO	-49,162
LG화학	-24,546
SK이노베이션	-20,699
한국전력	-14,427
기아차	-11,650
KT	-9,240
삼성중공업	-8,599
NAVER	-8,144
한화케미칼	-7,624
LG전자	-7,349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989	반도체	-9,650
금속	977	음식료,담배	-1,427
출판,매체복제	881	IT부품	-812
CJ E&M	975	서울반도체	-8,198
원스텍넷	975	루멘스	-2,381
성광벤드	825	매일유업	-1,608
에스에프에이	765	이녹스	-1,087
에스엠	756	하이록코리아	-549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1,141	반도체	-4,811
음식료,담배	1,076	금속	-1,929
제약	1,036	출판,매체복제	-1,187
CJ E&M	1,141	서울반도체	-4,659
하나투어	998	성광벤드	-1,733
휴온스	744	에스엠	-1,187
매일유업	642	메가스터디	-718
씨젠	617	하이록코리아	-497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508	제약	-794
금융서비스	253	출판,매체복제	-328
소프트웨어	172	사업지원	-200
서울반도체	537	씨젠	-521
이트레이드증권	253	로엔	-327
MDS테크	152	하나투어	-200
유진테크	119	원익IPS	-196
가온미디어	111	씨티씨바이오	-191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금속	1,521	반도체	-1,701
IT부품	1,031	오락,문화	-977
전문기술	479	기계,장비	-534
성광벤드	1,521	서울반도체	-1,406
파트론	871	파라다이스	-977
이오테크닉스	655	씨젠	-722
CJ E&M	540	실리콘웍스	-560
코오롱생명과학	467	에스에프에이	-442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의료,정밀기기	1,567	반도체	-20,354
금속	834	오락,문화	-1,864
소프트웨어	742	기계,장비	-1,676
CJ E&M	2,638	서울반도체	-15,749
휴온스	1,295	루멘스	-2,704
세코닉스	1,180	매일유업	-2,440
파트론	1,064	인터파크	-2,168
동국S&C	906	원익IPS	-1,831
태광	864	파라다이스	-1,748
한글과컴퓨터	843	씨젠	-1,058
에스엠	779	하이록코리아	-1,045
코오롱생명과학	708	삼천리자전거	-913
성광벤드	614	다날	-841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운송장비,부품	3,516	제약	-4,372
오락,문화	2,133	디지털컨텐츠	-3,866
통신장비	2,093	사업지원	-2,673
성우하이텍	2,940	셀트리온	-5,611
파라다이스	2,107	게임빌	-3,645
매일유업	1,333	하나투어	-2,766
SMEC	1,280	파트론	-2,477
인터파크	1,079	오스템임플란트	-2,192
루멘스	877	성광벤드	-1,323
서울반도체	835	에스엠	-1,190
씨티씨바이오	820	원익IPS	-978
SG&G	707	유진테크	-750
리움쿠첸	703	로엔	-71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세아베스틸	9 일	삼성전자	30 일
넥센타이어	9 일	신세계	18 일
현대모비스	9 일	LG패션	13 일
농심	7 일	오리온	12 일
POSCO	7 일	신도리코	10 일
대우인터내셔널	7 일	풍산	10 일
SBS	6 일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8 일
조선내화	5 일	삼양홀딩스	6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100 일	인터파크	12 일
SBS콘텐츠허브	7 일	솔브레인	12 일
메가스터디	5 일	성우하이텍	8 일
서부T&D	4 일	실리콘웍스	6 일
포스코 ICT	4 일	하이룩코리아	4 일
태광	4 일	다산네트웍스	4 일
네패스	4 일	게임하이	4 일
SK브로드밴드	3 일	SK컴즈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POSCO	115,783	삼성전자	287,912
기아차	49,203	KODEX 200	99,938
한국전력	46,350	SK텔레콤	93,149
강원랜드	44,014	TIGER 200	42,868
KODEX 인버스	34,450	호텔신라	37,010
삼성중공업	30,383	현대위아	25,890
현대차	29,838	한샘	21,507
현대모비스	23,603	엔씨소프트	19,243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오테크닉스	40,561	인터파크	8,637
에스앤씨엔진그룹	7,381	성우하이텍	8,478
KH바텍	5,036	CJ오쇼핑	5,994
세코닉스	4,190	GS홈쇼핑	5,045
AP시스템	2,774	루멘스	4,750
이라이콤	2,760	포스코 ICT	4,549
원스텍넷	2,539	하이룩코리아	3,914
코오롱생명과학	2,263	파라다이스	3,036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장비	122,749	5,248	127,997
종이, 목재	129	595	724
현대중공업	19,596	15,788	35,384
현대차	15,072	1,462	16,534
효성	1,105	6,448	7,553
현대위아	1,728	5,184	6,911
롯데케미칼	5,153	1,623	6,776
대우조선해양	5,018	23	5,041
KODEX 인버스	2,843	328	3,171
대우인터내셔널	1,910	602	2,512
현대모비스	376	1,972	2,348
LS산전	1,032	1,094	2,125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소프트웨어	742	1,374	2,117
소매	385	712	1,097
금융서비스	556	309	866
CJ E&M	2,638	77	2,715
휴온스	1,295	50	1,345
위메이드	428	487	915
이지바이오	470	391	861
하이비전시스템	75	692	767
나노신소재	167	562	729
원스텍넷	493	76	569
골프존	323	123	446
하림홀딩스	156	259	415
서부T&D	385	12	39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제일모직	22 일	한섬	15 일	에스에프에이	31 일	KCC건설	15 일
삼성전자	22 일	세아베스틸	13 일	우주일렉트로	22 일	평화정공	10 일
KT	22 일	넥센타이어	11 일	인터파크	8 일	OCI머티리얼즈	9 일
현대상선	17 일	기아차	9 일	포스코엠텍	7 일	이오테크닉스	9 일
동아쏘시오홀딩스	15 일	LG상사	9 일	태웅	5 일	웹젠	8 일
두산중공업	12 일	STX엔진	9 일	다날	5 일	DMS	6 일
TIGER 원유선물(H)	12 일	삼성중공업	8 일	성우하이텍	4 일	동국산업	5 일
쌍용차	11 일	삼성테크윈	8 일	서울반도체	4 일	STS반도체	5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226,798	POSCO	-104,977	서울반도체	-18,059	이오테크닉스	-60,387
KT	-75,903	LG화학	-82,186	에스에프에이	-8,143	셀트리온	-31,699
KODEX 200	-53,789	현대차	-77,738	인터파크	-6,997	게임빌	-5,254
삼성SDI	-49,389	기아차	-53,704	루멘스	-6,626	서울반도체	-4,608
삼성전기	-43,683	한국전력	-46,312	에스엠	-3,858	오스템임플란트	-4,002
TIGER 200	-43,423	삼성중공업	-37,822	포스코 ICT	-3,842	잉크테크	-2,817
SK텔레콤	-35,131	강원랜드	-21,545	파라다이스	-3,526	서울전자통신	-2,737
두산인프라코어	-33,955	대한항공	-21,393	하이록코리아	-3,012	세코닉스	-1,582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통신업	-16,691	-11,214	-27,905		반도체	-20,354	-1,390	-21,744	
서비스업	-10,315	-13,565	-23,880		제약	-748	-4,372	-5,120	
의약품	-4,674	-4,896	-9,569		디지털컨텐츠	-446	-3,866	-4,312	
LG화학	-1,004	-24,546	-25,550		셀트리온	-174	-5,611	-5,785	
KT	-12,652	-9,240	-21,891		게임빌	-47	-3,645	-3,692	
NAVER	-13,175	-8,144	-21,319		원익IPS	-1,831	-978	-2,809	
LG전자	-5,198	-7,349	-12,547		유진테크	-249	-750	-1,000	
LG디스플레이	-4,544	-6,133	-10,677		로엔	-202	-714	-915	
CJ	-5,623	-2	-5,624		에스코넥	-468	-363	-832	
유한양행	-2,051	-3,501	-5,552		바이로메드	-357	-414	-771	
녹십자	-2,437	-2,127	-4,564		덕산하이메탈	-97	-638	-736	
SK텔레콤	-962	-2,695	-3,658		이오테크닉스	-312	-312	-623	
LG상사	-2,960	-184	-3,144		국보디자인	-557	-18	-575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두산인프라코어	740	9,887	
롯데케미칼	28	5,622	
NAVER	8	4,948	
제일모직	54	4,760	
LG전자	66	4,535	
효성	53	4,070	
삼성SDI	22	3,865	
동국제강	278	3,77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서울반도체	105	4,362	
파트론	134	2,369	
하나투어	20	1,292	
덕산하이메탈	36	753	
대아티아이	238	459	
오로라	39	402	
위메이드	8	361	
포스코 ICT	42	352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617	5,371,576	
POSCO	8,739	2,779,060	
LG전자	19,553	1,343,288	
현대차	4,538	1,109,489	
OCI	4,989	962,851	
NAVER	1,338	798,655	
현대중공업	2,698	684,035	
오리온	583	588,13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4,899	654,058	
파라다이스	4,808	130,067	
파트론	6,048	108,559	
서울반도체	2,245	93,486	
에스엠	2,292	91,220	
다음	894	77,016	
SK브로드밴드	16,583	74,957	
CJ E&M	1,792	67,092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운수창고	1,359 보험	-2,282	
통신업	1,230 서비스업	-1,816	
의료정밀	1,078 금융업	-1,709	
SK텔레콤	1,287 한화생명	-1,629	
대한항공	1,174 우리금융	-959	
미래산업	1,046 대영포장	-805	
코라오홀딩스	886 한화케미칼	-652	
현대산업	752 SK하이닉스	-640	
동양증권	572 신한지주	-636	
LG전자	491 한국전력	-607	
현대차	458 SBS미디어홀딩스	-579	
두산건설	442 코오롱인더	-477	
두산인프라코어	430 두산중공업	-46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컴퓨터서비스	565 IT부품	-3,930	
도매	472 사업지원	-1,355	
반도체	421 통신서비스	-973	
포스코 ICT	390 파트론	-1,493	
대아티아이	300 SK브로드밴드	-1,050	
AP시스템	289 파라다이스	-916	
미코	288 루멘스	-902	
다우데이터	282 세중	-798	
제이웨이	200 셀트리온	-646	
오로라	195 하나투어	-577	
인프라웨어	183 인탑스	-545	
서울반도체	166 리홈큐텐	-532	
하림홀딩스	163 플렉스컴	-509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31(목)	11/01(금)	11/04(월)	11/05(화)	11/06(수)
외국인	5,098.0	-70.5	-95.1	-24.6	157.2	-180.4	-39.1	-23.5
기관계	1,204.8	-284.9	-513.8	-228.8	-70.7	34.9	-151.4	-90.9
(투신)	-6,476.7	-149.4	-269.6	-120.1	-45.3	-44.6	-12.8	-41.3
(연기금)	8,466.0	221.9	271.5	49.6	19.2	148.3	8.5	51.3
(은행)	-2,673.8	-27.0	-29.5	-2.5	-12.5	-4.8	-2.3	-10.6
(보험)	1,237.2	38.1	-35.1	-73.2	0.3	33.3	3.8	-2.3
개인	-4,661.2	374.9	615.4	240.5	-89.0	152.0	199.2	112.6
기타	-1,641.6	-19.4	-6.5	13.0	2.6	-6.4	-8.6	1.9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10/30(수)	10/31(목)	11/01(금)	11/04(월)	11/05(화)
KOSPI	2,033.3	1,825.7	1,997.1	2,059.6	2,030.1	2,039.4	2,025.2	2,013.9
고객예탁금	15,249.8	17,680.2	18,014.3	15,796.9	15,250.9	16,558.8	15,701.7	15,198.2
(증감액)	1,996.5	3,611.7	334.1	-696.5	-546.0	1,307.9	-857.1	-503.5
(회전율)	50.9	34.2	26.7	37.2	41.0	32.7	32.6	33.3
실질예탁금 증감	-3,314.4	3,791.6	-13,274.3	-824.5	-564.3	1,151.3	-622.4	-590.7
신용잔고	59,709.0	44,763.0	39,124.0	4,547.7	4,548.4	4,559.4	4,556.2	4,556.6
미수금	1,778.0	1,877.0	1,241.0	118.9	113.7	118.3	146.3	115.3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0/30(수)	10/31(목)	11/01(금)	11/04(월)	11/05(화)
전체 주식형	84,818	-8,472	-548	-31	204	-218	-113	-217
(ex. ETF)		-10,245	-116	-153	-117	-58	-47	-10
국내 주식형	63,877	-4,698	-475	-16	222	-194	-86	-195
(ex. ETF)		-6,505	-43	-137	-100	-34	-21	12
해외 주식형	20,941	-3,773	-73	-16	-18	-24	-27	-22
(ex. ETF)		-3,740	-73	-16	-18	-24	-27	-22
주식 혼합형	9,856	-62	5	-17	6	3	8	-5
채권 혼합형	23,131	4,420	22	-24	-37	11	13	-2
채권형	55,490	1,867	145	21	38	-177	370	-48
MMF	77,148	10,124	2,586	2,103	-404	-1,720	2,887	1,41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31(목)	11/01(금)	11/04(월)	11/05(화)	11/06(수)
한 국	5,038	-55	95	-23	162	-170	-37	-11
대 만	7,561	145	173	140	13	149	-115	98
인 도	16,366	37	-111	290	-	-	-	-
인도네시아	-1,150	-117	-438	16	-48	-41	-	-28
태국	-3,579	-144	-337	-51	-57	-25	-62	-
남아공	1,834	-136	-142	25	-32	-43	-61	-
필리핀	929	-28	-31	-3	-	-9	4	-23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2년	10/30(수)	10/31(목)	11/01(금)	11/04(월)	11/05(화)	11/06(수)
회사채 (AA-)	3.29	3.22	3.25	3.27	3.29	3.31	3.31
회사채 (BBB-)	8.80	8.92	8.95	8.97	8.99	9.01	9.01
국고채 (3년)	2.82	2.79	2.82	2.84	2.86	2.88	2.88
국고채 (5년)	2.97	3.02	3.06	3.08	3.11	3.15	3.14
국고채 (10년)	3.16	3.36	3.40	3.45	3.47	3.51	3.49
미 국채 (10년)	1.76	2.50	2.56	2.62	2.61	2.65	-
일 국채 (10년)	0.80	0.59	0.59	0.59	0.60	0.61	-
원/달러	1,070.60	1,060.60	1,060.70	1,061.85	1,062.95	1,061.20	1,060.90
원/엔	1,243.73	1,070.30	1,078.60	1,081.00	1,077.00	1,078.56	1,078.26
엔/달러	86.08	98.23	98.34	98.30	98.76	98.39	98.39
달러/유로	1.32	1.38	1.37	1.36	1.34	1.35	1.35
DDR3 1Gb (1333MHz)	0.67	1.53	1.53	1.53	1.53	1.53	-
DDR3 2Gb (1333MHz)	1.07	2.06	2.15	2.18	2.17	2.17	-
NAND Flash 16Gb (MLC)	1.89	3.56	3.55	3.55	3.54	3.55	-
CRB 지수	295.01	280.02	277.86	274.96	273.72	273.03	-
LME 지수	3,454.5	3,179.3	3,152.2	3,140.4	3,100.3	3,103.6	-
BDI	699	1,484	1,542	1,525	1,552	1,600	-
유가 (WTI, 달러/배럴)	91.82	96.77	96.52	94.60	94.60	93.37	-
금 (달러/온스)	1,663.40	1,337.60	1,323.70	1,313.20	1,314.70	1,308.1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312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10월 31일	266.91	268.85	0.81	1.94	1.78	154,890	132,296	-338
11월 1일	268.63	269.50	0.80	0.87	1.34	102,944	133,131	835
11월 4일	266.59	267.00	0.74	0.41	0.77	138,462	130,303	-2,828
11월 5일	264.96	265.65	0.71	0.69	0.74	164,746	127,254	-3,049
11월 6일	264.62	265.60	0.71	0.98	0.99	154,573	126,278	-976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10월 31일	-2,367	1,630	1,135	4,737	-3,147	62	-457	-11
11월 1일	708	-392	-409	-956	725	46	-205	-18
11월 4일	-1,014	188	1,401	1,560	-1	100	-246	-13
11월 5일	-2,070	1,324	1,109	2,524	-1,113	-4	-294	-4
11월 6일	-1,208	766	388	223	567	-44	-336	-21
누적포지션	863	5,633	-5,854	-918	-4,185	1,773	-2,105	-268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0월 31일	1,199	1,053	-146	1,177	1,000	-177	21	53	32	5,063	9,774
11월 1일	570	584	13	554	565	12	17	18	2	5,058	9,775
11월 4일	990	624	-367	952	611	-341	38	12	-26	5,081	9,669
11월 5일	758	495	-263	720	483	-237	38	12	-26	5,106	9,664
11월 6일	742	711	-31	718	698	-19	24	1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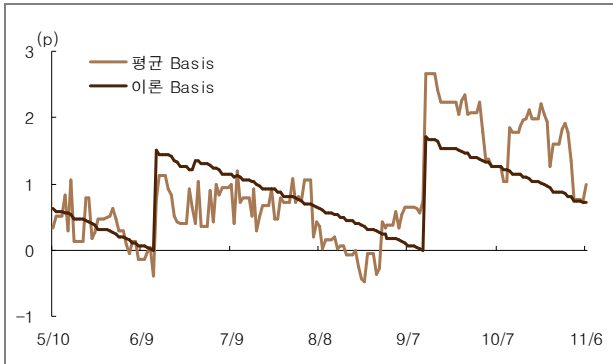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13.76	-4,400	41,388	0.02	277.50	11.95	25	-7	0.00
13.09	-2,267	148,658	0.05	275.00	10.00	220	-89	0.00
12.53	4,423	213,152	0.13	272.50	7.65	1,131	-73	0.00
12.72	4,296	248,155	0.39	270.00	5.35	7,245	-644	9.22
12.98	2,259	209,738	0.96	267.50	3.40	25,691	-585	10.82
13.70	1,802	160,900	2.03	265.00	1.96	179,258	513	11.79
14.35	860	10,177	3.55	262.50	1.01	173,735	-408	12.44
15.92	123	3,863	5.55	260.00	0.46	164,694	1,150	12.93
16.85	4	65	7.70	257.50	0.21	108,935	2,009	13.76
27.67	0	73	10.80	255.00	0.10	84,475	1,160	14.79
24.74	0	3	12.70	252.50	0.06	48,204	1,476	1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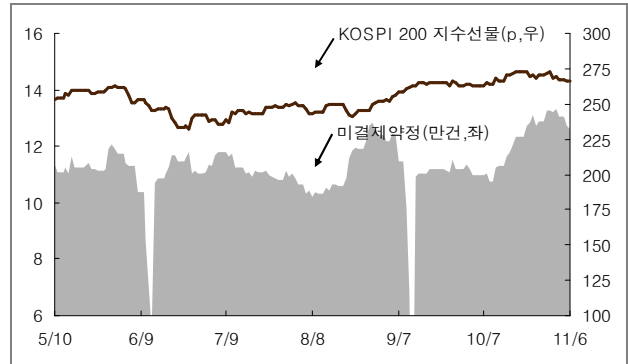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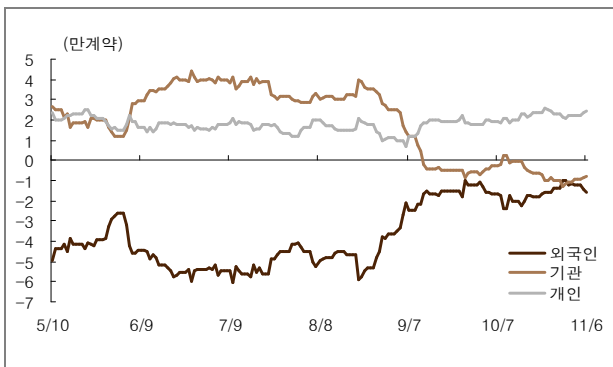
- 평균 Basis: 0.99 (전 거래일 대비 0.25 상승)
- 이론 Basis: 0.71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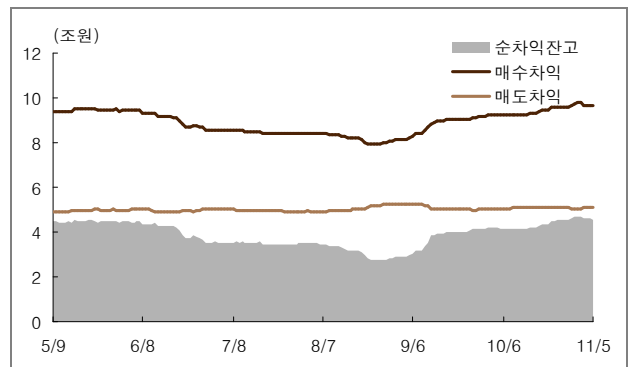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976 계약 감소한 126,278 계약
- 선물가격(265.60): 전 거래일 대비 0.05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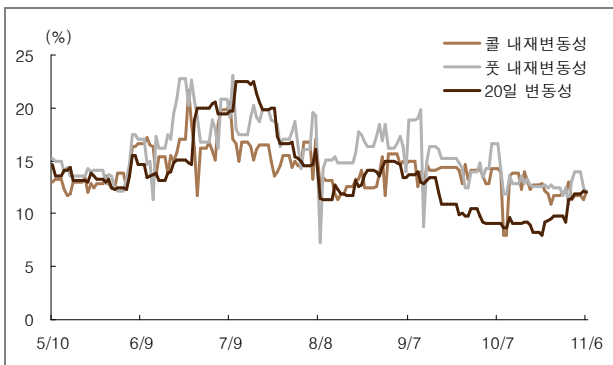
- 외국인: 1,208 계약 순매도
- 기관: 388 계약 순매수 / 개인: 766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111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194 억원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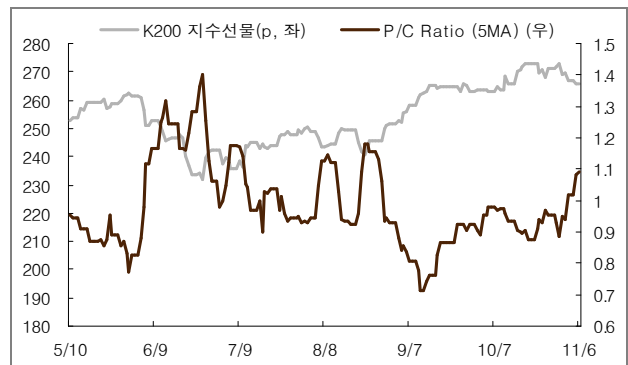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2.2% / 풋 12.0%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2.05%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3년 9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09 기록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8	29	30	31	11/1
韓> 10월 소비자대지수 (106, n/a, 102) 美> 9월 미경주택매매 (-5.6%, 0.5%, -1.6%)	韓> 9월 BoP 경상수지(억달러) (657.1, n/a, 573.5) 美> 8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164.53, n/a, 162.59) 日> 9월 실업률 (4.0%, 4.0%, 4.1%) 9월 소매판매 MoM (1.8%, 0.5%, 0.9%)	韓> 9월 공공업생산 YoY (-3.6%, 1.7%, 3.2%) 美> 10월 ADP 취업자 변동 (13.0만, 15.0만, 14.5만) FOMC 금리결정 (0.25%, 0.25%, 0.25%) 유럽> 10월 소비자대지수 (-14.5, -14.5, -14.5) 日> 9월 공공업생산 예상 MoM (1.5%, 1.8%, -0.9%)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4.0만, 33.8만, 35.0만)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288.1만, 287.0만, 285.0만) 유럽> 9월 유로존 실업률 (12.2%, 12.0%, 12.0%) 10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 (0.7%, 1.1%, 1.1%) 日> 9월 건설 수주 YoY (89.8%, n/a, 21.4%) 10월 JMMA 제조업 PMI (54.2, n/a, 52.5)	韓> 10월 소비자물가지수 (0.7%, 1.0%, 0.8%) 10월 수출 YoY (7.3%, 2.3%, -1.5%) 10월 제조업 PMI (50.2, n/a, 49.7) 美> 10월 ISM 제조업지수 (56.4, 55.0, 56.2) 中> 10월 제조업 PMI (51.4, 51.1, 51.1) 10월 HSBC 제조업 PMI (50.9, 50.7, 50.2)
4	5	6	7	8
美> 9월 제조업수주 MoM (1.7%, 1.8%, -0.1%) 유럽> 10월 유로존 제조업 PMI (51.3, 51.3, 51.4) 中> 10월 비제조업 PMI (56.3, n/a, 55.4) 실적발표> 韓 BS금융지주 美 시스코, 쉘로그, 마라톤 오일	유럽> 9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0.1%, 0.2%, 0.0%) 中> 10월 HSBC 서비스 PMI (52.6, n/a, 52.4) 실적발표> 韓 서울반도체 美 다이렉티비, CVS	美> 10월 ISM 비제조업지수 (55.4, 54.0, 54.4) 11월 IBD/TIPP경기낙관지수 (41.4, 42.0, 38.4)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6.4%) 유럽> 10월 유로존 서비스 PMI (51.6, 50.9, 50.9) 9월 소매판매 YoY (n/a, 0.6%, -0.3%) 실적발표> 韓 SK브로드밴드, 골프존 美 21세기 폭스, CH로빈슨, 타임워너, 펌코 데본에너지, 듀크에너지, 푸르덴셜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3.5만, 34.0만)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n/a, 287.3만, 288.1만) 3분기 GDP 연간화 QoQ (n/a, 2.0%, 2.5%) 유럽> ECB 금리공시 (n/a, 0.5%, 0.5%) 日> 9월 예상 동행지수 (n/a, 108.3, 107.6) 9월 예상 선행지수 CI (n/a, 109.4, 106.8) 실적발표> 韓 한라비스테온공조, NAVER GS리테일, 지역난방공사 美 쉘컴, 프라이스라인	美> 10월 실업률 (n/a, 7.3%, 7.2%) 10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 (n/a, 12.0만, 14.8만) 10월 민간부문 고용자수 변동 (n/a, 12.5만, 12.6만) 中> 10월 무역수지(억달러) (n/a, 246.0, 152.1) (9-12일) 3중전회 개최 실적발표> 韓 강원랜드, CJ E&M, 한전, 삼성증권, 다음, 한화생명 美 월트 디즈니
11	12	13	14	15
유럽> 8월 산업생산 SA 中> 10월 소비자물가지수 10월 생산자물가지수 10월 공공업생산 日> 9월 BoP 경상수지	韓> 10월 수출/수입물가지수 美> 10월 NFIB 소기업낙관지수 日> 10월 통화량 M2 YoY 10월 통화량 M3 YoY 10월 국내 CGPI YoY	韓> 10월 실업률 SA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10월 수입물가지수 유럽> 9월 산업생산 SA MoM	韓>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10월 생산자물가지수 9월 무역수지 엘런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中> 10월 외국인 직접투자 日> 3분기 GDP SA 9월 공공업생산	美> 10월 공공업생산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유럽> 3분기 GDP SA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